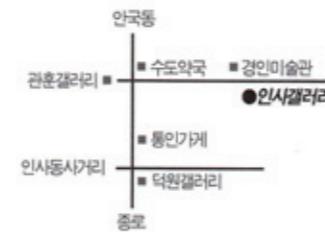


# *Kim, Yoo Joo* Ceramic Works Solo Exhibition



**인사갤러리** 서울 종로구 관후동 29-23 우편번호 110-300 전화 02/735/2655-6 팩시밀리 02/735/2652

*Kim, Yoo Joo* Ceramic Works Solo Exhibition

김유주 도예전

1997년10월1일(수)-7일(화)

인사갤러리

## 베란다에서 그리는 그림

김유주는 베란다에서 작업을 한다. 화초나 빨래걸이가 어울림직한 즙고 길다란 아파트 베란다에 흙덩이들과 전기 가마, 크고 작은 석고들을 빼곡히 늘어놓고 간신히 물을 피해 다니며 작업을 한다. 그리고 놀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작품을 구상하느라 온갖 궁리를 한다. 전면이 유리창으로 된 이 베란다를 건너 편 아파트에서 본다면 신기해 할 것 같다. 낯선 물건들이 도일한 유리 티날 속을 조심스레 발짝을 떼며 이동하거나, 혹은 한 자리에 있은 채 원기를 끊임없이 보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문 하나 사이로 내부와 격리되는 이 공간은 하루의 어느 시간 동안 그의 일상이 잠시 숨을 멈추고 서 있는 곳인 듯 하다. 외부로 흥한 이곳에서 그는 그의 생각을 그려내며 또 습관처럼 자기 자신과 마주 않는 것 같다.



그는 이 작업실은 물론 아파트나 도시 환경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어진 그대로의 이 공간을 자신의 배경으로서 순응하는 듯하다. 주변환경을 긍정하는 그의 시각은 작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그의 블럭 작업이 그러하다. ‘사각의 방과 사각의 창, 사각의 길 그리고 사각의 이웃집들... 그러나 결코 싫어해 본 적이 없는 그 사각 환경 속에서,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벽들 한 장의 형태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최소 단위로서의 입방체 하나를 작업을 위해 선택했고 이 도시적 모티브인 작은 벽들을 그는 반복 하기로 했다.

반복, 이야기로 그가 환경과 조응하며 일궈낸 자신의 방법이다. 말하자면 작업환경의 공간적 한계를 시간적 확장으로 극복한다고나 할까. 캐스팅에 의해 자가 ~~화면~~ 흙으로 구어 낸 흰색 블럭들은, 입체적 구조로 몇 개가 결합되면서 한 유니트의 부조적 패턴을 만들고, 이는 다시 반복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우의 콤포지션을 이루어낸다. 하드에지 hard-edge의 요철 위에 빛의 음영이 얹히자면, 사각형의 무리들은 더욱 선명한 모습으로 확장하여 올 아트 Op.Art적 일부전을 만든다. 반복은 리듬을 수반하며 리듬은 정렬된 물질들을 충동한다. 아까동무를 한 블럭들의 모습은 마치 도시의 아파트군을 나타낸다. 본 항공사진 같기도 하지만, 명제가 말하듯 작품을 통한 구상적 이미지의 흥기는 그의 관심이 아닌 듯하다. 그가 키워낸 ‘물질과 형상’, 그리고 그들의 ‘어울림’이 중요하다. 적어도 아직까지의 작업에서는 그러하다. 호이징하, Huizinga는 인간이 사물을 속에서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장 고귀한 성질은 ‘율동’과 ‘조화’. 두 가지라고 했다. 그의 작품들도 이 고귀함을 좇는 듯하다.

그가 활용하고 있는 캐스팅casting 기법은 전 작업의 성격을 규정하는 모태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입체 조형에서의 캐스팅은, 일정한 형태(원형)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형틀을 통해 다수의 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한편, 원형과 형틀, 복제를 거치는 캐스팅의 조형 방식은 작업 과정의 조직적이고 매카닉한mechanic 특성으로 인해 특유의 조형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마치 판화가 일반 회화로부터 구별되는 특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도자의 경우 다른 기법에 비해 캐스팅에 의한 조형물은 상대적으로 형태상의 정교함, 표면이나 조직에서의 균일함, 가벼운 무게 등의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복제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캐스팅의 방식을 활용하는 도자작업의 예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김유주의 경우,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캐스팅 작업이 일관된 생산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 이유는 구성요소의 복제 생산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캐스팅이 도출하는 형태상의 이유들, 즉 기하형태들이 갖는 하드에지의 낭장함과 다소 수리적이며 정형적定形的 형태감, 그리고 점토의 물질성을 상쇄하는 시각적 경쾌함을 얻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색의 블럭들과 사방연속의 미니멀한 구도를 일관했던 초기 작업들에 비해 최근에는 블럭 위에 조심스럽게 채색이 되며 ‘구멍뚫기’가 시도되기도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블럭들의 결합 구조의 변화와 비대칭적 구도다. 새로운 판짜기로 미지의 지형도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다.



도심환경 속에서 하나의 벽들과 마주친 것처럼 그의 컵 이란 주제도 상징적인 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생활이 추출한 또 다른 삶불이기 때문이다. 그의 벽들이 외부적 주변에서 둘출한 소산이라면 이 컵들은 내부 환경의 생활 가운데서 서서히 진화된 물건이다. 그는 한동안 도자기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많은 컵을 생산했다. 자신의 컵이 남들의 손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각기 다른 의미로 아들이 수용되는 여러 경우들을 경험했으며, 근원적으로 컵이 갖는 기능과 정신적 역할에 대해서 숙고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의식주 생활 기준에서 컵 만큼 인간과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접촉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물건이 있을까. 특히, 인간에게 중요한 물을 담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인간의 유대를 통반하는 차나 술을 담는다는 이유로, 그것은 대화와 ‘소통’이란 정신적 행위가 있는 곳에 놀 소품으로 등장해 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용자? 혹은 제작자?의 정서와 관심을 반영하는 표현의 수단이 되어 온 것이다.

최근에 그는 이 컵들 속에 숭중 구멍을 뚫고 있다. 담으라는 컵인지 빼라는 컵인지 모르겠다. 이중의 벽을 가진 이 컵들은 속이 빈 벽들의 두께로 용기로서의 컵의 공간을 짐작하고 있다. 이 경우, 컵의 공간적 조건, 즉 내부와 외부라는 물리적 경계가 무너진다. 이중 벽의 컵들이 확대되는 구멍들에 의해 계속 침식되면서 하나의 컵은 보는 이의 시각적 연상을 동반하여 그의 형상을 유지하게 된다. 실공간과 허공간이 서로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분명, 차 대신 의미를 담아가고 있는 이 컵들은 그러나 개념만을 전하고 폐기되는 미술품이 아니다. 컵이란 대상에 대한 유희적 질문, 조형적 일탈, 친근함과 낯섦의 결합... 이들이 그의 컵에서 읽히고자 있는 텍스트text'라 하더라도, 이 작업의 시종을 떠받치고 있는 뿌리는 즉물성과 짐식성이 사설을 간과할 수 없다. 물질로서의 이름다움과 시각적 무게, 구조, 환경과의 친화적 결합, 작업의 어느 과정에서도 이를 관심사를 떠난 적은 없다. 구멍들이 살아서 계속 커질 것 같은 느낌에도 불구하고 눈에 익은 이 컵들은 실내환경과 효과적으로 조용하는 장식성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기장 단정한 형태 하나를 선택하여 복제한 이들은 많은 변형variation에도 불구하고 통일감과 반복적 시각 효과를 갖는다. 이 경우에도 캐스팅은 그 값을 하고 있다.

한편, 진행 중인 그의 또 다른 컵들은 다소 공격적인 태세로 크기를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 넓게 확보된 벽면에는 그림이 그려지고 이 그래픽 이미지와 실제 공간의 변용이 함께 어우러질 것 같다. ‘이중구조’와 ‘구멍뚫기’라는 언어가 다시 반복되고 있지만 이미 거인이 된 컵들은 전혀 다른 표정을 지울 것 같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가르켜 도자세공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 속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뜻과 자신의 작업이 정교하면서도 한편 지나치게 꾼꼼하다는 자조적인 뜻이 함께 섞여 있다. 자신의 작업을 미화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혹 그의 표현이 오직 스스로에 함몰되어 있는 주변의 많은 도에 작가들의 영향으로 원가 꼼꼼하거나 수리적이거나 정교하게 미흡된 작업은 ‘흙의 작업’이 아닐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점이다.

김유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만큼 자신의 작업도 긍정할 줄 안다. 이 긍정은 자기애自己愛가 아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이 전제되어 있다. 이 판단 속에서 자신의 것을 찾고 그것을 끌어 안으려는 의지, 이것이 그가 보이고 있는 긍정의 의미다. 이것은 앞으로의 작업을 지향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란다에서 그의 작업은 계속 될 것 같다. 한 줄의 굵은 선을 긋는다는 듯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전시회를 준비하지만, 어느새 그들이 또다른 출발을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곧 알게 되기 때문이다.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떠나는 그의 여행은 정말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

전용일

금속공예가 / 국민대 교수

컵 Cup / 백토, 조합토 / 1260°C / Ø13cm / 1996



컵 Cup / 백토 / 1260°C / Ø13cm /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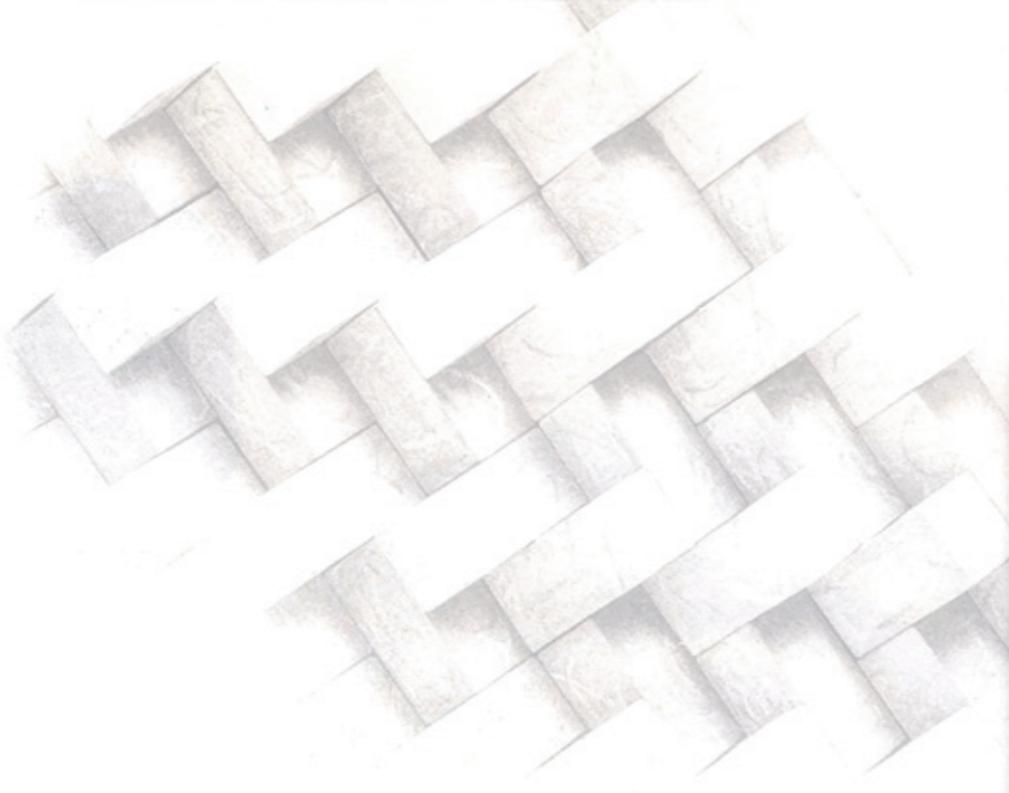


컵 Cup / 백토 / 1260°C / Ø13cm /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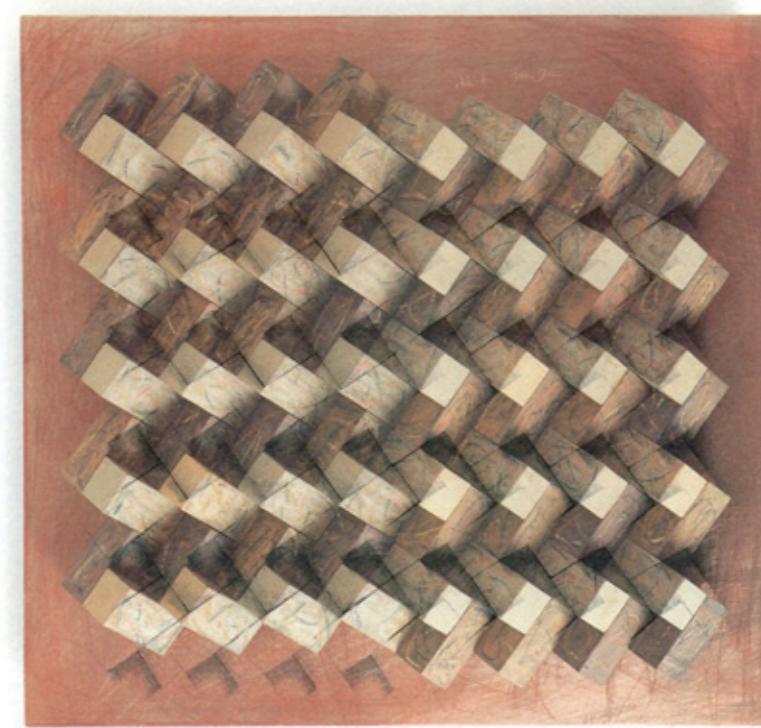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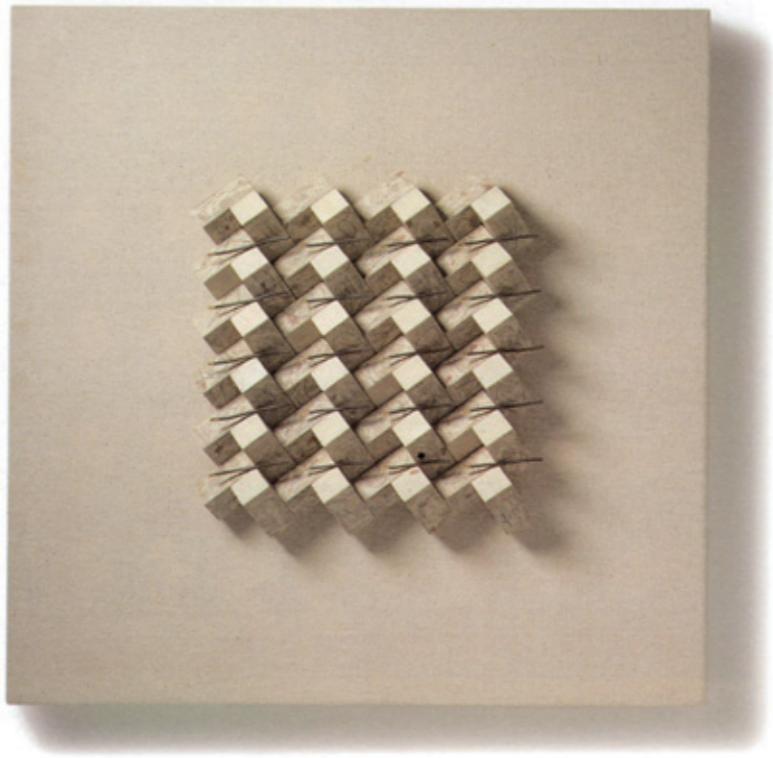
컵 Cup / 백토, 조합토 / 1260°C / Ø13cm /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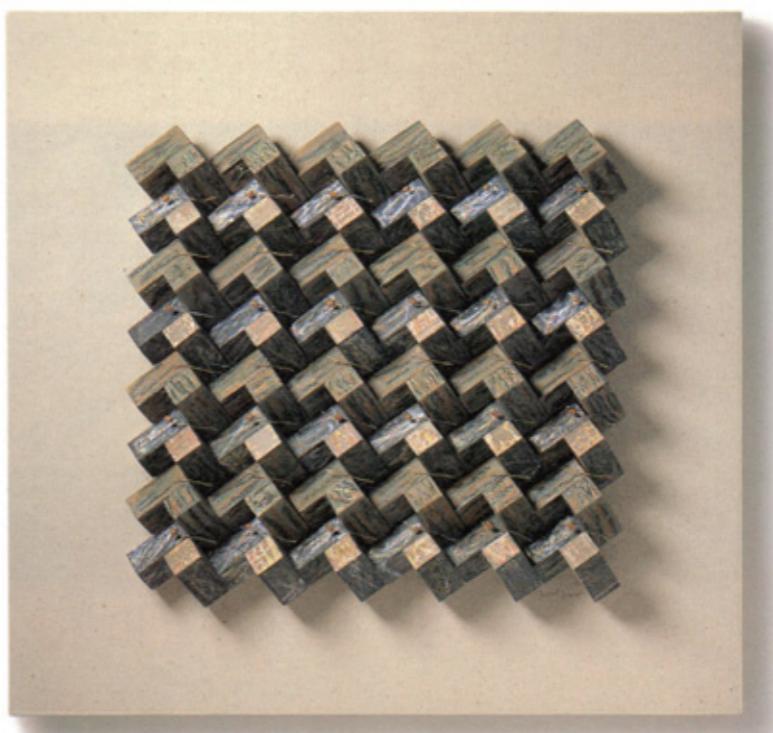


무제 Untitled / 조합토, 안료, 적동 / 1260°C / 31 x 29.5 x 4.5cm /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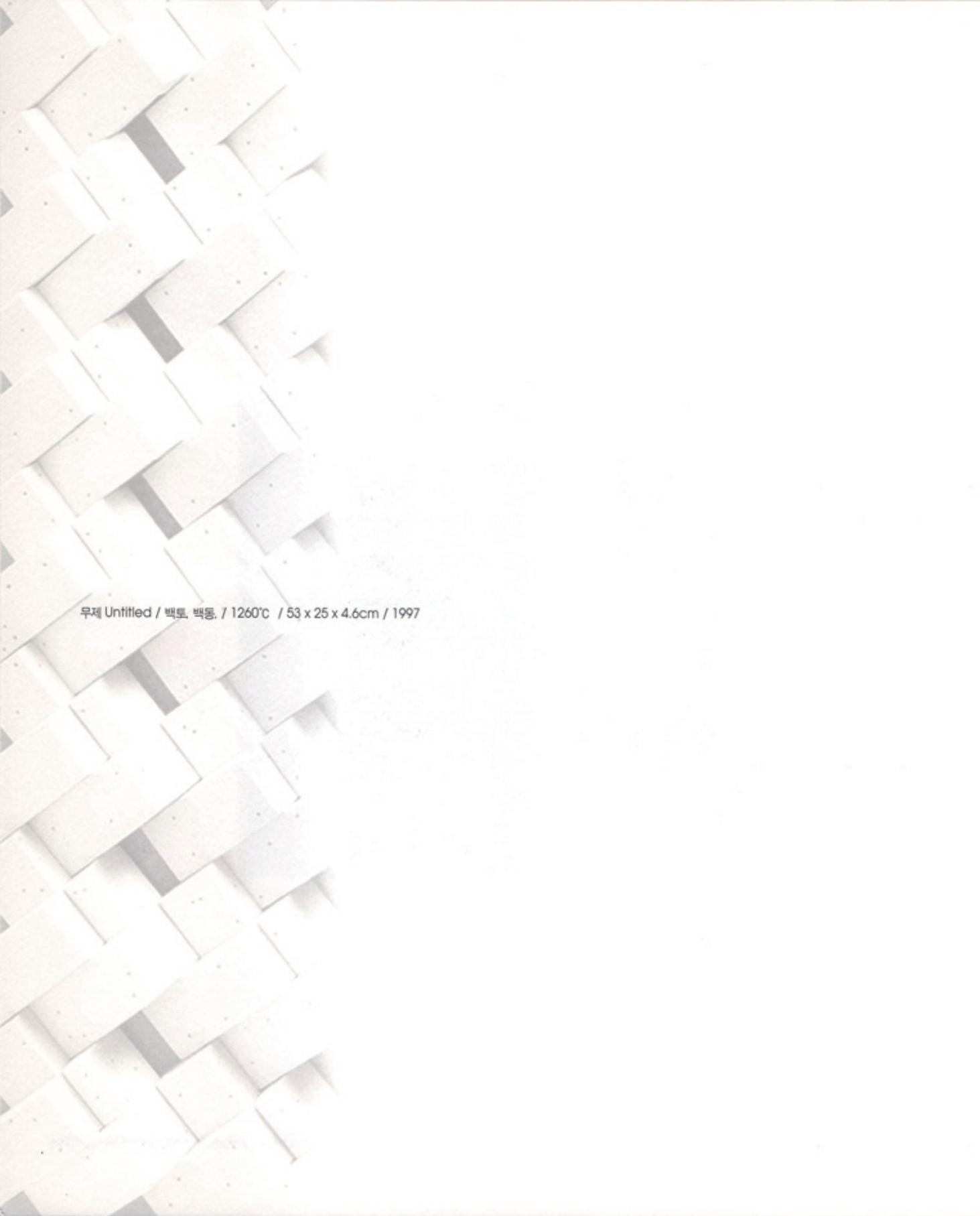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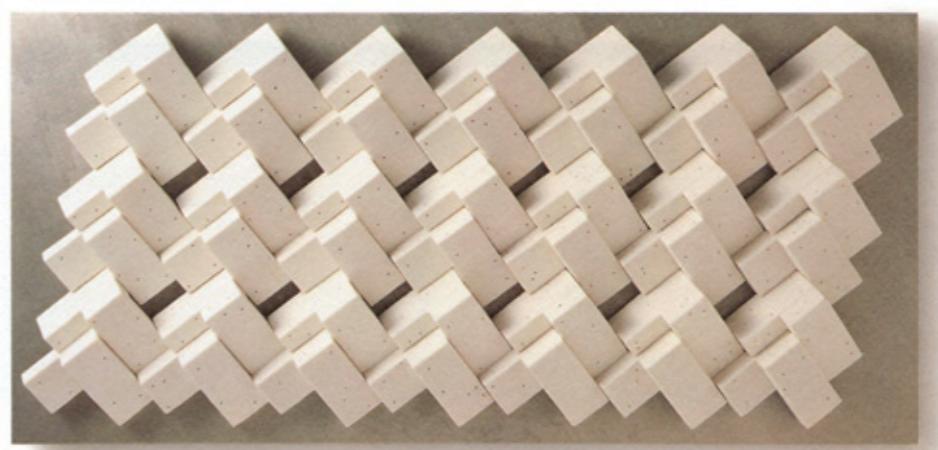
무제 Untitled / 조합토, 안료, 적동, 금박 / 1260°C / 43 x 43 x 7cm /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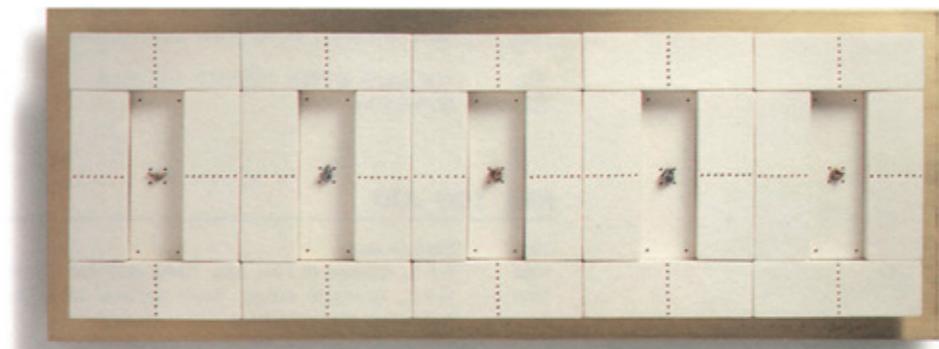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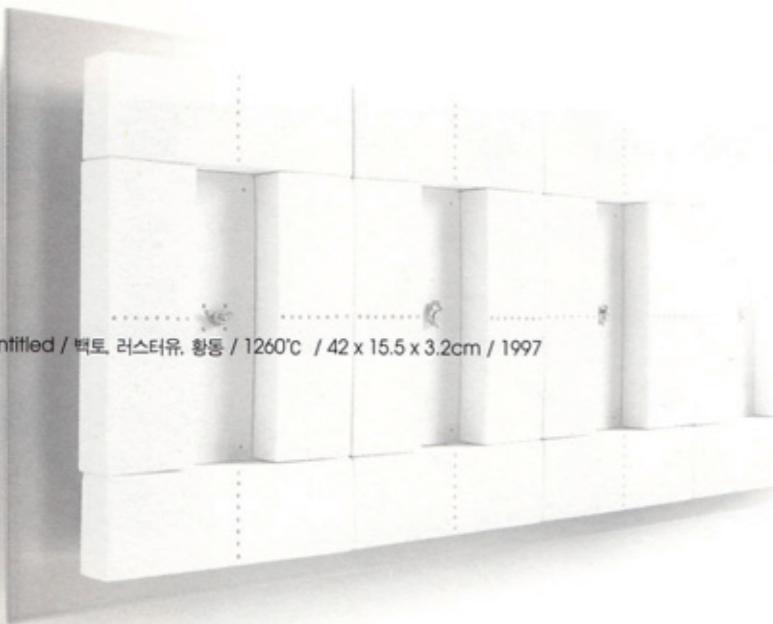
무제 Untitled / 백토, 안료, 백동, 나무조각 / 1260°C / 45 x 43 x 6.5cm / 1996



무제 Untitled / 백토, 백동 / 1260°C / 53 x 25 x 4.6cm / 1997



무제 Untitled / 백토, 러스터유, 황동 / 1260°C / 42 x 15.5 x 3.2cm / 1997





김유주 ( 金柔住 )

1961 서울생  
198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도자공예)  
현재 서울대학교, 경기대학교 강사

주요전시

1997 첫번째 개인전 (인사갤러리, 서울)  
1986- 토전  
1990- 흙의 시나위전  
1985-90 가을 도예전  
1992 그릇전 (토도랑, 서울)  
CUP전 (토도랑, 서울)  
1990 테이블 위의 도자전 (토도랑, 서울)  
  
1993 제4회 세계 소도자 공모전 입선 (유고, 자그라브)  
1990 제3회 세계 소도자 공모전 특별상 (유고, 자그라브)  
  
주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45동 306호  
전화 02/543/0204

KIM, YOO JOO

1961 Born in Seoul  
1984 B.F.A.,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6 M.F.A.,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ent Instructor, Seoul National Univ., Kyunggi Univ.

EXHIBITIONS (SELECTED)

1997 1st Solo Exhibition (Insa Gallery, Seoul)  
1986- 'Tow' Clay Works  
1990- 'Sinawee of Clay'  
1985-90 'Autumn Clay Works'  
1992 'The Pots' (Todorang, Seoul)  
'The Cups' (Todorang, Seoul)  
1990 'Ceramics on Table' (Todorang, Seoul)  
  
1993 Honourable mention, IV World Triennial Exhibition  
of Small Ceramics (Zagreb, Yugoslavia)  
1990 Special Prize, III World Triennial Exhibition  
of Small Ceramics (Zagreb, Yugoslavia)

Address 45-306 Hanyang Apt., Apgojeong-Dong, Kangnam-Gu,  
Seoul, 135-110 Korea  
Tel 02/543/0204